

社說

외형 변화가 조계사 성역화 아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린다.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중요 기관과 기구, 단체들이 조계사와 인근에 입주해 있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10일 조계종은 제 33대 집행부 종단 4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계사 성역화를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

조계사 성역화는 역대 집행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상징성을 띤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시멘트 건물에 둘러싸여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와 조계종의 사회적 위상에 어울리는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

아울러 조계사라는 공간이 우리 것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는 데서 발걸음을 떼야 한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내마당처럼 드나들면서 불교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가해 시민단체의 행사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불교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국가정보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계사에서 열려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계사에 압박을 넣은 것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장은 시민단체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최우선 과제인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기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됐다.

두 연구결과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기재부가 의뢰한 KDI의 보고서는 거기에 가깝다. KDI의 보고서 내용에는 영리병원 허용 시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실증적 데이터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확적 근거나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영리병원을 해야 한다는 KDI의 보고서가 기대고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가설뿐이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인연

어릴 때 어머니는 수퍼우먼이었다. 돈 들어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지 다 해주시는 분이였다. 새벽에 밥을 차려놓고 4남매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가서서 출근이나 집가나 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셨다.

10여 년 전에 경상도 어느 산사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되어 1년 남짓 머물며 예불하고 법당과 마당을 청소했다. 스님의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천진성을 엿보기도 하고 보살님의 정성어린 공양을 양분 가득 비벼서 맛있게 먹기도 했다.

더 확대되어야 할 의료 공공성

문은 시장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시장실패의 영역이 바로 보건의료 부문이라는 점이다. 의료공급자의사-소비자(환자)의 정보격차가 너무 커서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다.

흔히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장면'의 예를 들어, 자장면이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분야는 자장면

불자 세상보기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가게의 시장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의 우수한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의 우수한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환자 1인당 의료비는 비영리병원에 비해 20%나 더 높다.

좋은 인연이란 없다

에 올라간 산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내려왔다. 좋은 인연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산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눈두렁 발두렁을 놀이터로 동무들과 어울려 놀았다.

조중학교 4학년 올라갈 무렵 나는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도시로 나간다는 설레임과 더불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 믿고 좋아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는 고향이 그리워 앓아누웠다.

대학 시절 학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문지국을 전전하며 숙식했다. 신문지국은 좁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지저분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길래도 하면 밤에 잠을 자기는 다 틀렸

다. 낮에 학교에 가야 하는 나로서는 새벽 3시경 신문이 도착할 때까지 술 마시며 떠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다.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갈 곳이 딱히 없었다.

좋은 인연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연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쁜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버스에 전철 속에서 내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중수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상임연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 광고국, 현대불교 시사안내, 구독신청 정보.

대한불교 원음종 창종을 알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 펼치기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 정, 혜 삼학을 근본으로 하는 원음종을 창종하였습니다.

범어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 창종일시: 2010년 2월 7일 사시
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6-3 대한불교 원음종 총본산 순일선원 www.soonil.org
전화: 070)7779-7711

대한불교 원음종 종정 순일

창종위원: 혜원, 혜려, 다함, 다원, 무유